

본당 소식

2024년 9월 교황님 기도지향 : '지구의 부르짖음'

우리가 저마다 지구의 부르짖음과 자연재해와 기후 위기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모든 이가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세상을 직접 돌보는 책임을 맡도록 기도합니다.

♣ 09월 22일 미사 시간 변경

- 두 분 주교님께서 오시는 다음 주일(22일) 미사 시간을 '10시30분'으로 변경합니다.

♣ 견진성사를 축하드립니다.

- 엄기용 안토니오, 박동현 요한 보스코, 정이한 다윗, 김익찬 암브로시오, 엄채운 엘리사벳, 정아인 레나, 윤미자 모니카, 박지숙 레아, 박건욱 레오, 이소현 엠마, 안태오 마태오, 안태리 소화 데레사, 강윤이 스텔라, 강윤아 헬레나, 안동진 안드레아, 강소현 율리아, 손지영 미카엘라, 주진경 율리아

♣ 주일학교 개강

- 새 학기를 맞이한 주일학교 학생들과 봉사해주는 교리교사 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대구대교구 재유렵 사제모임

- 2024년 09월 23일(월)~25일(수), 로마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이승준 다니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12,05€ • 교무금 300,00€

전례 성가

입당 : 6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봉헌 :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체 : 178 (성체 앞에), 187 (천사의 양식)

파견 : 444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전례 봉사

이번 주일(9월 15일)	다음 주일(9월 22일)
1독서: 이승준 다니엘	1독서: 이민찬 비오
2독서: 윤상돈 알레산드로	2독서: 윤지영 베레나
복 사: 엄채운 엘리사벳, 변가일 헬레나	복 사: 정상현 안토니오, 강한 프란체스코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총무: 변의용 베네딕토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체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2024년 9월 15일 (녹) 연중 제24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나는주님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 으리- 라

○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

○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에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 주소서.” ◎

○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

○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제1독서 (이사야서 50,5-9ㄴ)

5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6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7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 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9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제2독서 (야고보서 2,14-18)

14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15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16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18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서는 실천이 있소.”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복음 (마르코 8,27-35)

그때에 2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29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0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31 예수님께서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2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3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34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3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빛이신 주님,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세상 것을 좇아 주님을 헛되이 섬기는 잘못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리를 찾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주님의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자신과 정당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모든 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3. 안전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삶의 터전을 살피 주시어, 안전사고로 몸과 마음을 다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만을 믿고 바라며 성가정의 모범을 따르려는 저희 가정을 굽어 보시어, 신망에 삼덕을 굳건히 지키고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